

한형조 교수의 금강경강의 (51)

붓다의 유머 그 날카롭고 따뜻한



불교(佛敎), 붓다의 위대한 가르침

좀 염기적이었나. 돈오가 '깨달음은 경험 혹은 사견'을 말하지 않고, '깨달음의 성격'에 대한 지적(知識) 통찰 혹은 이해라는 말에... 아직도 놀란 입을 다물지 못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 이 말을 좀 더 부연해 보기로 합니다.

왜 돈오가 제창되었습니까. 거기에는 불교가 오랫동안 깨달음의 성격을 오해해 왔다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그때까지 불교는, 계율을 지키거나 좌선을 오래 하고 있으면 우리의 정신이 고양되며, 그러다가 어느 순간 스파르카가 일어나면서 그동안 우리가 몰랐던 어떤 경지가 열린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 같은 점오(漸悟)를 일컫는 말로 '깨달음'을 사용했나.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선의 실질적 창시자 육조(六祖) 혜능(惠能)입니다.

몸은 보리수, 마음은 거울
 너무나 유명한 그 화두를 기억하시겠습니까. 나이 든 신수가 벽에 붙인 시 구절은 어땠습니까. "내 마음은 거울이니, 시시로 부지런히 거 거 먼지를 닦아 나가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스승 홍인의 실랑

감을 컷습니다. "그리 하면 큰 죄는 짓지 않겠지... 다들 신수를 본받아라."
 그러나 정작 인가를 받은 사람은 스무 살 청년인 혜능이었습니다. 혜능이 남방의 오랑캐였고, 또 일자무식이라는 사실이, 혹은 허구적 설정이, 돈오(頓悟)를 말하는 돈교(頓敎)의 과격적이고 혁신적 성격을 보여주기 위한 무대장치 같지 않습니다.
 혜능은 "몸은 보리수도 아니고 마음 또한 거울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곳은 어디 먼지 없거나 때가 끼는 곳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달리 말하면, "우리 마음이 신분·성별·직업·인종·차종(車種)에 상관없이, 아파트 평수, 강남·강북, 서울·지방에 상관없이, 이미 완전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미 완전하기에, 우리는 더 이상 닦을 것도 찾을 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돈오입니다.
 하여 제가 해석하기에는, 돈오(頓悟)란 '깨달음(悟)이 이미(頓) 있다'는 뜻입니다. 이를 선은 다른 말로, '깨달음에는 점차(漸次)와 계제(階梯)가 없다!'고도 즐겨 표현합니다. 그래서 선은, 즉심즉불(卽心卽佛), "네가 곧 부처이니, 어디 먼 데서 찾

생각하지 말라"고 다그치는 것입니다.
 그럼 사람들은 묻습니다. "그런데 왜 다시 수행이 필요하지? 이미 깨달았다면 서..." 깨달음에 대한 지적 통찰은, 그것을 구체적 삶의 현장에서 살아나가는 일에서 비로소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그 노력을 우리는 점수(漸修)라고 부릅니다.
 돈오는 그런 점에서 완전하지 않습니다. 돈오는 불교적 진실에 대한 지적 통찰이니, 그것은 이제 시작이고, 전체일 뿐입니다. 그

한 지적 이해"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바로 그 돈오(頓悟)를 '살아가는 것'이 점수(漸修)에 속합니다. 그것은 끝이 없는 심화와 지속의 실천적 과정입니다. 깨달음 한 번에 일대사인연(一大事因緣)을 마치겠다는 턱없는 과욕과 오만을 버리십시오. 그럴 수는 천만 없습니다. 경허대사의 탄식인지, 자부인지 모를 다음과 같은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돈오라는 점에서 내가 어디 부처와 다르겠느냐, 다생(多生)

를 하라는 말이 천만에, 아닙니다. 또 성철 스님은 돈오로 대장부 일대사 모든 것이 끝났으니 점수를 더 이상 언급도 하지 말라고 단칼로 내치시지만, 그러나 어떤 위대한 깨달음을 얻은 자라도 다생의 습기는 떨치기 어렵고, 또 유혹과 실수 앞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회엄과 선이 같은 곡조를
 그래서 제가 돈오와 점수를 매우 자의적

나 열어도 모두 부합하는 까닭에 가히 나아갈 수 있다."
 "그 문에 초입(趨入)한 사람은 들어섬이 없기 때문에, 들어섬이 없으니 없다. 이 덕(德)을 닦는 사람은 얻음이 없기 때문에 얻지 않음도 없다. 삼현십성(三賢十聖)이 이에서 행함에 두루하지 않음이 없고, 삼신시불(三身十佛)이 구비하지 않은 덕이 없으니(회엄경의) 그 문장이 밝게 빛나고 그 뜻이 넓고 무궁함을 무슨 말로 칭찬하랴."
 ⑤ "대방광불회엄(大方廣佛華嚴)이란 이름은, 법계가 무한하기에 대방광(大方廣)이요, 행덕이 끝이 없으므로 불화엄(佛華嚴)이다. 대방이 아니면 불화를 넓힐 수 없고, 불화가 아니면 대방을 장엄할 수 없다. 이래서 방(方)과 화(華)의 뜻을 함께 들어 그 광엄(廣嚴)의 종(宗)을 드러냈다."
 앞뒤 제하고, 여기 법계(法界)는 '이미 완전한 세계'를 가리키고 있고, 행덕(行德)은 그 세계를 살아가며 실현해나가는 중생들의 노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법계가 돈오(頓悟)를 가리킨다면 행덕은 점수(漸修)를 보여줍니다. 각각의 중생들은 이미 완전한 세계에서, 자신들의 몸과 입과 마음의 업(業)으로, 삶이 완전하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계가 이미 완전하므로, 그가 어떤 역할을 맡고 있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신분, 직업, 인종, 빈부와 귀천에 상관없이 그들은 이 완전한 우주에 화엄(華嚴), 즉 꽃으로 장식하는 주인공들이 말입니다. 우리 중 누구 하나가 빠져도 이 세계는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 큰 믿음과 자부심을 가지고, 이 짧은 한생, 책임지고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사십시오. 그것이 불교(佛敎), 붓다의 위대한 가르침입니다. ■한국학중앙연구원

점수(漸修)는 돈오 그것을 실천하는 일

불이(不二)의 진실을 삶에서 구현해나가는 것은 그의 삶 전체를 바쳐야 하는 멀고 힘든 길입니다. 왜 지눌 스님이 해오(解悟)를 앞에 두고도 다시 증오(證悟)를 내세웠겠습니까. 그 고구정령을 깊이 새겨야 합니다.

돈오와 점수는 새의 알날개
 제2장에서 저는 다음과 같은 취지를 말한 적이 있습니다. 복습하는 의미에서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돈오(頓悟)는 쉬운데 정말 점수(漸修)가 어렵습니다! 불교의 이치는 우리 모두가 알고 있으며, 그 이치를 진정 믿기가 어렵고, 또한 그 가르침대로 살기가 어렵습니다. 돈오를 이렇게 천박하게, 가볍게(?) 해석하는데 대해 눈을 흘기시는 분이 많을지 모르겠습니다. 방패막이 삼자면, 이 또한 제 목이나 창안이 아니라 옛적 지눌 스님께서 돈오를 해석하신 그대로입니다. 스님은 돈오란 다른 아니라 "마음의 실상에 대



의 습기(習氣)가 깊어서... 바람은 멎었으나 물결은 아직 일렁이고, 진리를 알았지만, 상념과 정념이 여전히 침노한다(頓悟須同佛, 多生習氣深, 風停波尚湧, 理現念猶侵).
 그렇습니다. 돈오와 점수는 새의 두 날개처럼, 수레의 두 바퀴처럼 서로를 지켜주고 보완해주는 쌍둥이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것은 시간적 순서에 따라 진행되는 과정이 아닙니다. 즉, 돈오한 '이후에' 점수

으로, 제 멋대로 해석한다고 몽둥이를 드시는 분이 많을 듯합니다. 전 시간에 읽은 원효의 <회엄경 소> '서(序)'의 마지막 구절을 다시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④ "지금 이 경(經)은 원만무상(圓滿無上)의 돈교법문(頓敎法門)이라. 법계법문을 널리 열어 무변의 행덕(行德)을 현시한다. 행덕을 거리낌 없이 내보여도 계단이 있는 까닭에 가히 닦을 수 있고, 법문이 끝이 없

주장사 따라... ⑦⑧ 명허 스님의 '양초각'

조태호

명허 스님 (1897~1970): 법명 동근(東根). 서울 마포에서 태어나, 1912년 풍곡 스님을 은사로 출가. 금강산 마허연, 부산 범어사 등에서 수도. 1970년 해인사 흥혜암에서 입적.

네티즌 교리문답

수리수리 마하수리란?

질문 "수리수리 마하수리...암" 텔레비전 코미디 프로그램이나 어린이프로그램에 도사가 나와 주문을 외는 장면이 등장하는 말입니다. 또 <천수경>에도 '수리수리 마하수리...'란 다라니를 외고 있지만, 그 참뜻을 알지 못하고 미구하는 예가 많아요. 무슨 의미인가요? (수리수리맨)

답1: 도사의 주문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천수경>에서는 이 진언을 구업(口業)을 말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천수경>은 우리나라에서 <선야삼경> 다음으로 불교의식에서 독송수지되는 경입니다. 아침예불전 도량식으로 <천수경>이 염송되며 모든 예식의 전후에 천수경을 읽니다.
 <천수경>의 첫 시작은 '정구업진언(淨口業眞言)' 이지요. '입으로 지는 업을 깨끗하게 하는 참된 말' 이 정구업진언인데, 그 진언이 '수리수리 마하수리 수수리 사바하' 지요. 이 진언을 세 번 외고 <천수경>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진언)

답2: '수리'란 범어로 길상존(吉祥尊)이라는 뜻입니다. '마하수리'의 마하는 '크다'는 뜻이므로 마하수리는 대길상인 것이지요. '수수리'의 수는 '지극하다'의 뜻이고, '사바하'는 '원만(圓滿)' '성취(成就)'의 뜻입니다. 따라서 '수리수리 마하수리 수수리 사바하'를 이어 해석하면 '길상존이시여 길상존이시여 지극한 길상존이시여 원만·성취하소서...'가 됩니다.
 이렇게 세 번 외음으로써 입으로 지는 업을 깨끗하게 한다는 진언이다. 입으로 짓는 업이라면 거짓말, 이간하는 말, 아첨하는 말, 남을 욕하는 말 등이 있습니다.
 인간의 모든 잘못된 입으로부터 전달되고 입으로부터 악해됩니다. 따라서 모든 공덕의 시적을 입을 잘 다스리는 데서부터 시작한다는 천수경의 근본취지는 매우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길상)

답3: 진언은 혹은 주문(呪文)이라고도 합니다. 주문을 열심히 외우면 높은 공덕을 지닌다는 주장은 <능엄경> 제7권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사람이 전생의 업과 습기(習氣)가 두터워서 그를 없애지 못할 경우 '능엄심주'를 일심(一心)으로 외우면 그 업이 제멸된다고 합니다. (능엄)

부다뉴스(www.buddhanews.com)에 네티즌 교리문답 코너가 있습니다.

상식퍼즐

가로

1	9	2	10
	3		
		4	
5		11	
		6	
7			12
		8	

정답은 26면에

1. 모든 번뇌를 끊어서 자유자재한 지혜를 얻으며 그 사실을 아는 능력 2. 고구마의 평안도 사투리 3. 여러 개의 날개를 갖지 못한 바퀴를 높은 곳에 달아 바람에 회전하도록 해서 동력을 얻는 장치 4. 민물에서 사는 거북 5. '아주 단단함'을 불가에서 일컫는 말 6. 더하고 빼는 셈 7. 부처님이 열반에 든 후 관이 열리며 석존이 금빛 몸을 드러냈다는 전설 8. 생산과정에서 새로 맺힌 가지.

세로

1. 매우 많은 돈 7. 담배 피는 것을 금함 9. 바람을 잘 통하게 함 10. 예로부터 지금까지 11. 이름난 집의 여진 머느리 12. 낫치과의 바닷물고기류 기슴지느러미가 길게 발달해 있어 해면 위를 날아올 수 있음.